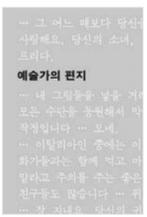


# 유명 예술가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편지 엿보기

## 예술가의 편지

마이클 버드 지음·김광우 옮김

“그대를 미치도록 사랑하오. 나의 카미유, 난 다른 어떤 여자에게도 감정이 없고 내 영혼은 통째로 그대 것임을 보증하오. 그대에게 확신도 못 주고, 내 설득은 요령부득이네. 그대는 내 고통을 받지 않소. 나는 울부짖는데, 그대는 여전히 의심하고 있지. 웃어본 지도 오래, 더 이상 노래도 안 나오고, 모든 게 하나같이 지루하고 시들하도오. 나는 이미 죽었다오. (중략) 매일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오. 적선하는 셈치고, 그러면 내 상태도 좀 나아질 거요. 오직 그대만이 아량을 베풀어 나를 구할 수 있소.”



근대 조각의 시조로 일컫는 조각가 로댕이 클로델에게 보낸 편지 일부다. 중년의 이름난 천재가 아름답고 젊은 재능 있는 조수와 사랑에 빠졌다. 그러나 클로델은 로댕을 밀어낸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무엇보다 오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 로즈 보레가 있었기 때문이다.

로댕은 ‘매몰친 친구여’로 시작하는 러브레터를 보낸다. 이 편지에서 그는 온통 자기감정에 빠진 예술가의 특유의 일면을 드러낸다. 로댕은 존경에서부터 음소는 물론 다양한 수사를 통해 그녀에게 대시한다. 편지에는 날뛰는 감정과 엇갈린 비유 등 로댕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원래 로댕이 ‘지옥의 문’을 위해 고안한 ‘영원한 우상’ 속 남자의 포즈를 ‘사랑하는 그대의 몸 앞에 무릎 꿇은’ 로댕의 이미지라고 한다.

예술가들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작업 자체와 관련이 있다. 렘브란트가 하위헌스와 왕래한 서신은 ‘돈’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 있다. 하위헌스는 렘브란

트 작품세계를 미술계에 알린 당대 저명한 인문학자다. 렘브란트는 예의상 절제된 언어로 안부를 묻지만 사실은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명한 예술가들의 은밀하고 사적인 기록을 담은 편지를 엮은 책이 나왔다. 마이클 버드가 펴낸 ‘예술가의 편지’는 저마다 개성 넘치는 손 편지로 주고받은 예술가들의 내밀한 사연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예술가들의 편지는 스마트폰, SNS로 대변되는 디지털과는 차원이 다른 감성과 시대의 풍경을 보여준다. 한 글자 한 글자 짝짝 눌러 쓴 손 편지에는 글씨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모두 90여 편 편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 통치자 루도비코 스포르타에게 보낸 이력서부터 신디 셔먼이 미술 평론가 아서 단토에게 보낸 감사엽서까지 예술가의 역사를 아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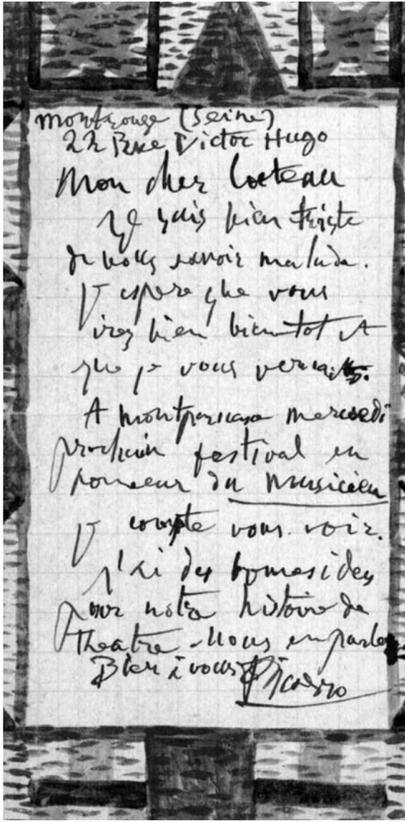
개성 강한 자의식의 세계를 그린 프리다 칼로가 벽화 예술가 디에고 리베라에게 보낸 편지는 사랑에 빠진 이의 절절함을 표현한다. 1928년 처음 만난 두 사람은 이듬해 결혼했지만 리베라의 거둔 불륜과 칼로의 낙태로 곧잘 삐걱거렸다. 리베라는 화가로서 칼로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다. 10대 때 사고로 30여 차례 수술을 받은 칼로가 화가의 길을 걷도록 도움을 줬다. 다음의 편지는 칼로가 리베라에게 보낸 편지다.

“디에고, 내 사랑, 프레스코화를 끝내면 티격태격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오직 서로 사랑하기로 한 것만 기억할 거예요. (중략) 그 어느 때보다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의 소녀 프리다”

편지는 크게 받는 이와 편지의 목적을 토대로 분류할 수 있다. 편지를 받는 이에는 가족과 친구, 예술가, 후원자, 연인 등으로 나뉜다.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은 안부와 업무, 여행 등으로 구분한다. 각각의 편지에는 환경적 요인을 뒤어넘는 단서와 암시 등이 숨어 있어 흥미를 더해준다.

〈미술문화 2만2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파블로 피카소가 장콕토에게 보낸 패류를 바라는 편지. 〈미술문화 제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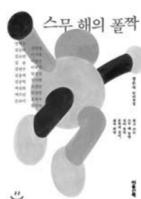
# 스무 명의 문인들이 털어놓은 문학의 ‘히로애락’

## 스무 해의 폴짝

정은숙 지음

수많은 출판사들 가운데 ‘자기 색깔’을 분명히 하는 출판사들이 있다. ‘마음산책’도 그 중의 하나다. 문학, 예술, 인문서를 주로 펴내는 마음산책의 책들은 책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취향이 맞을 땐 신뢰를 보낸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스무 살’이 된 마음산책은 특별한 기획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책으로 묶었다. 400여종의 책을 펴낸 마음산책은 함께 책을 만들었던 스무 명의 작가와 인터뷰를 했다. 책과 글쓰기와 문학이 어떤 의미인지 점검하고, 그 스무 해를 도약대 삼아 세차고 가볍게 새로운 날들을 향해 뛰고 싶



면의 깊은 곳까지 시선을 내려 글을 쓰는 문인들이다.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이어진 인터뷰는 내부 원칙을 정하고 시작했다. 저자들의 글이 생산되는 곳인 작업실 혹은 생업의 공간으로 찾아간다. 우리가 보낸 스무 해를 돌아볼 수 있는 공통의 질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특히 ‘스무해를 도약대로 폴짝 뛰고 싶은 마음’을 담아 문인들이

게 치수와 좋아하는 색을 물어 ‘운동화’를 선물했다.

이렇게 만난 문인들은 권혁웅·김금희·김소연·김승·김연수·김용택·김중혁·백선희·백수린·손보미·신형철·이기호·이승우·이해인·임경성·정이현·조경란·하성란·호원숙·황인숙 작가다. 책에는 ‘문학하는 현실의 기쁨과 슬픔’이 고스란히 담겼고, 육성으로 듣는 작가들의 ‘작품론’도 흥미롭다. 좋아하는 작가라면 읽는 재미는 두 배다. 인터뷰 중 언급되는 많은 책과 영화 등은 또 하나의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가에 대한, 책과 출판에 대한, 문학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한없는 애정이 담긴 질문들을 던지는 저자와 그에 답하는 작가들의 읽고 쓰는 일에 대한 내밀한 고백과 삶에 대한 나지막한 목소리는 ‘솔직하고 유쾌하고 애뜻했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귀한 이야기였다. ‘나만의 것’ 등의 시집을 펴내기도 한 정 대표의 글은 인상적이다. 인터뷰 내용이 좋지만 각각의 작가에 대한 인상을 이야기하는 한 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신형철 평론가와의 조선대에서의 만남은 “그가 쓴 글의 텍스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시적, 작가적 인식의 새로움을 발견 당했고 그 발견의 해석은 독자들을 매료시켰기에’ 웬지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줄 것만 같은, 읽어줄 것만 같은 섬세함과 공손함”을 이야기하며 시작된다. ‘새로운 편견과 지레짐작으로 지친 세상살이의 묵은 각질이 벗겨지는 만남’을 이끈 황인숙 시인, ‘이모같은’ 이해인 수녀, 그녀가 ‘멋지다’와는 다른, ‘나이스’하다는 말로 표현한 이기호 소설가 등의 만남이 흥미롭다.

진심이 오가는 글을 읽다보면, 앞으로도 ‘마음산책’의 책들은 다시 내 손에 들려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마음산책·1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서울을 걷다=서울의 법정동은 현재 467개동이다. 그 중 사직동, 연희동, 한강로동, 문래동, 망원동, 중화동, 등 20여 개동을 책에 담았다. 저자는 서울살이를 시작하면서 일하고 머물렀던 동네, 특히 기억에 남았던 동네를 다시 찾아 볼펜, 답펜, 피그먼트펜으로 혹은 나무젓가락에 잉크를 묻혀 기록했다. 서울의 면면, 곳곳이 페이지마다 섬세한 선으로 드러난다. 〈재승출판·1만5000원〉



▲난생처음 서핑=언젠가는 해변까지 싶었던 로망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에세이 ‘난생처음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다. 저자는 덕다브나 에스 키모를 등 서핑 기술을 말하면서 더 깊이 빠져야 큰 파도를 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또, 레시가드 사이로 보이는 벅살, ‘야매 강사’를 만나서 고생한 에피소드 등은 피식피식 웃음을 자아내지만,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타리미수 더북·1만3000원〉



▲중배와 혐오=어머니들은 완벽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자녀의 실패(뿐 아니라 가정의 모든 실패)에 대해 책임을 요구받는다. 책은 이러한 신화를 비판하며 저자는 모성에 대한 서구 이론가들의 연구와 데이터를 망라해 어머니가 사회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 어머니가 아

이에게 실제로 무엇을 느끼는지, 어머니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탐구한다. 〈창비·1만8000원〉

▲우리 집 고양이의 행동 심리=천방지축 고양이의 마음을 뇌 과학을 통해 설명한다. 고양이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고양이의 뇌를 먼저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가. 고양이라는 동물의 진화와 생존배경, 그로 인해 만들어진 습성을 조명하며 고양이를 사랑한다면 고양이라는 동물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다온북스·1만45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엄마 사슴=아기 사슴을 위해 기꺼이 악어에 맞서는 엄마 사슴의 사랑을 그림으로 펼쳐낸 시그리책이다. 엄마 사슴은 자신의 위험 따위는 개의치 않고 아기 사슴을 구하기 위해 거침없이 악어의 입을 향해 돌진한다. 엄마 사슴의 송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담은 시와 눈부시고 아름다운 파스텔 톤의 그림으로 구성된 책은 엄마의 깊은 사랑을 더욱 따뜻하게 전한다. 〈바우술·1만2000원〉

게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세상의 소리를 만들어낸다. 아슬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분홍고래·1만6000원〉

▲세상의 소리=그림으로 들려주는 세상의 소리다. 그림과 글이 음악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며, 일상을 마법으로 채우는 법을 알게 해준다. 소피아는 바닷가 마을에서 담아온 바다의 소리를 숲속 친구들에게 선물해 준다. 바다와 숲은 그림

▲소녀 애희, 세상에 맞서다=흔란한 시기, 각자의 이익만을 쫓는 부패한 관리들과 맞서는 어린 소녀 애희 이야기다.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낸 애희는 전쟁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모두 잃고 외장의 수양딸이 된다. 커다란 세상과 맞서기에는 너무나 작았지만, 애희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지키려 애쓴다. 〈내일을여는책·1만1000원〉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